

英語英文學科의 현황과 전망

趙 俊 學

(서울대 英語英文學科)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대학에 영어영문학과가 생긴 것은 1946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영어영문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80여개교를 상회한다.

영어영문학과는 다른 외국어학과와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정치·경제·사회·외교 분야의 유능한 인사를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8년에 치룬 올림픽 경기만 해도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들 그렇듯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에서 이른바 국제어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곧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앞서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영문학과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영어영문학과와 발전을 위해 응분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영문학과와의 현황을 살펴 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강구 하면서, 앞으로 2000년대의 우리나라 영어영문학과와의 位相을 전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現況과 問題點

1) 人的 構成

1989년도 영어영문학과와의 신입생 입학 정원이 5,737명이었다고 하니 전국의 영어영문학과 학생 수는 줄잡아 2만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을 교육하는 전임교수는 1987년 현재 788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25 정도가 된다. 이 수치는 불어불문학과와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1:60인 데 비하면¹⁾ 월등히 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영문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과반수가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으며 대학원 학생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과, 영어영문학과 교수들은 적지않은 수의 교양 영어 시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영문학과와의 전임교수 수는 아직도 많이 不足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大學教育」 1989년 3월호 “佛語佛文學科의 현황과 개선 방안” 참조.

사실 교수의 주당 수업 시간이 12 시간 내지 15 시간이나 되는 대학이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의 과다 현상으로 대단위 강의실에서 강의해야 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수가 연구를 충실히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교육의 질도 저하될 염려가 있다.

교수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영문학 전공이어서 명칭만 영어영문학과이었을 뿐 실제로는 영문학과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주로 미국에서 어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영어학 전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중 13개 대학의 교수 183명 중 문학 전공 교수가 111명, 어학 전공 교수가 72명으로 되어 있어 어학 전공 교수가 거의 4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것은 영어영문학과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지방대학에서 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 회화와 영작문을 담당할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교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 조사 대상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의 조교 대 학생의 비율을 보면 학생 수 3,641명에 조교 33명으로 1:110의 비율을 보인다. 계층에는 학생 수 593명에 조교는 1명뿐인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 239명에 조교 14명인 대학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조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교수의 수업과 평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 학생 50명에 조교 1명의 비율로 조교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敎科課程의 編制와 運用

영어영문학과와 관련된 교과과정은 대략 3개 영역으로 나뉘어서 편성된다. 즉 영어 연습, 영어학, 영문학이 그것이다.

영어 연습 과목은 어·문학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영어영문학과 학생의 영어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영작문, 영어회화, 영미산문, 실용 영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이다.

영어학 과목들은 영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과목과 공시적으로 고찰하는 과목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에는 영어발달사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영어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고찰하는 영어음운론, 영어형태론, 영어통사론, 영어의미론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영어학개론과 영문법, 영어음성학 등이 여기에 포함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영어학과 언어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어학이 여러 개별 언어의 특성과 보편성을 고찰함으로써 언어의 일반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영어학은 영어의 구조를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특성을 구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세계의 3,0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언어가 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반하여 영어학은 어디까지나 영어가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어떤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든 그 기본이 되는 이론과 연구 방법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또하나 영어학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학부에서의 영어학 교육은 언어 이론보다도 영어 자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어의 음운 구조, 형태 구조, 통사 구조,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이 곧 영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장차 영문학을 전공할 학생들에게도 영어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어학 관계 과목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영어학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는 언어학특강, 언어와 철학, 응용언어학 등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언어학과나 철학과에서 다루기에 합당한 과목으로서 선택 과목으로서는 적당할지 모르나

2) 최근에 韓國大學敎育協識會의 지원으로 영어영문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영어학 전공 과목으로서는 부적당하다. 또 어떤 대학에서는 영어문법론, 현대문법론, 영어학 연습 등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학부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전문화된 과목들이어서 대학원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영문학 전공 분야는 영어학과는 사정이 또 다르다.³⁾ 우선 영문학과 미국 문학을 구분해야 하는 데다 영문학만 하더라도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부에서 영·미 문학의 모든 시대, 모든 장르를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단 장르별로 영미소설, 영미시, 영미희곡, 영미문학 비평과 영미문학 개관 등으로 대별하고 영미소설과 영미시 등을 세기별로 구분해서 학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개중에는 학부 영문학 전공 과목으로서 부적당한 과목들을 개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문학개론, 소설론, 연극론, 문예비평론 등은 너무 일반적인 과목들이어서 영문학 전공 과목으로 보기 어려우며 영문학연습, 미문학연습, 영미문예비평사 등은 지나치게 전문화된 과목들로서 학부 과목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영어학이나 영문학을 막론하고 교과과정이 충실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첫째 요인은 교과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대학에서는 전공 이수 학점을 45 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대학에서는 87 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형평을 잃은 교과과정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교수진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대학은 문학 전공 교수와 어학 전공 교수의 비율이 22:8 인가 하면 또 어떤 대학은 그 비율이 8:9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숫자상의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교수들은 자기의 특수한 전

공 분야 이외의 과목을 강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개설 과목이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수 충원을 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3) 敎授方法 및 評價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class size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독 위주의 수업이 불가피하다. 외국어 과목은 특히 네 가지 기능에 숙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수십 명을 상대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교양영어 시간이 고등학교 영어 시간의 연장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렇더라도 학생으로 하여금 충실히 연습을 해오도록 유도하고 문법 설명이나 자구 해석보다는 대의 파악과 내용 설명에 중점을 두어 교양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교실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리포트를 쓰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전공 과목의 경우는 특히 고학년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과제를 주어 준비시킨 다음 강의 시간에 발표하게 하고 이것을 성적 평가에 반영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유발시키고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대학의 대부분이 학기당 2회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 한 대학만이 수시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가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학기마다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이외에 수시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험을 자주 본다는 것은 채점이라는 부담을 교수에게 안겨주므로 그렇지 않아도 강의 부담이 큰 교수들로서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쓰기를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수를 늘려서 그들이 채점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조

3) 이 글에서 영문학 분야에 관해 쓰면서 경북대 殷竹男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

사 대상 가운데 한 대학에서는 14 명의 조교를 두고 수시로 에습한 결과를 시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본받을 만한 제도이다.

4) 敎育施設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교수진과 교과과정 그리고 교수 방법의 중요성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시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교수 연구실이 모든 교수에게 주어져야 한다. 연구실은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하루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충분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연구실이 부족하여 두 세 명이 같이 쓴다면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합동 연구실이 있어야 하듯이 학부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과 도서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강의 과목과 관계 있는 참고 문헌들은 물론 과에서 권장하는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영문학 관계 외국 저널이 몇 종 구비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시청각 기구와 교재를 갖춘 영어 실습실이 있어야 한다. 영문학의 명작을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세익스피어의 극작품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감상한다면 이것은 교실에서의 강의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어음성학 같은 과목은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영어 발음을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展望—改善方案의 摸索

지금까지 1946년 우리나라에 처음 개설된 이래 발전을 거듭해 온 영어영문학과의 현황을 대강 살펴 보고 아울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다. 앞으로 11년 후 21세기에 접어들 무렵이면 교수진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때쯤엔 우리나라의 영어영문학의 수준이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과 비견할 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가운데 교수 층원에 관한 문제와 교과과정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1) 敎科課程의 模型

교과과정이 이상적이면서도 실현성 있게 짜여 지던 그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 알맞은 교수진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우선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교과과정 모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각 대학은 이 모형을 참고하여 그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은 주기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모형은 앞으로 약 5년 후에는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영어영문학과의 교과과정은 교양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율을 우선 염두에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졸업 이수 학점 140 학점 가운데 교양 과목 42 학점, 전공 과목 69 학점 그리고 선택 과목 29 학점을 배정한다.

전공 과목은 다시 영어연습 4개 과목, 영어학 전공 8개 과목 그리고 영문학 전공 21개 과목 등 총 99 학점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개설하여 그 가운데서 69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이 과목들은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로 개설할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필수라고 표시되지 않은 과목은 선택 과목이며 각 과목은 주당 3시간으로 3학점 짜리이다).

(1) 영어연습 과목

영작문(필수), 영어회화(필수), 영미산문, 실용영어

(2) 영어학 과목

영어학개론(필수), 영어발달사(필수), 영문법, 영어음성학, 영어형태론, 영어통사론, 영어의미론, 영어학특강

(3) 영문학 과목

영미문학개관 3과목

영문학개관 I(필수), 영문학개관 II(필수), 미문학개관(필수)

영미소설 6과목

18세기 영소설, 19세기 영소설 I, 19세기 영소설 II, 19세기 미소설, 20세기 영소설, 20세기 미소설

영미시 6 과목

16세기 영시, 17·18세기 영시, 19세기 영시, 19세기 미시, 20세기 영시, 20세기 미시

영미회곡 4 과목

셰익스피어 I (필수), 셰익스피어 II, 현대영회곡, 현대미회곡

영미문학비평 2 과목

영미문학비평, 영미문학 특강

위에 열거한 과목 중 영미산문은 Arnold, Ruskin, Emerson, Thoreau 등 대표적인 영미 작가들의 산문의 논지, 논리의 전개, 사상적 내용, 문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실용 영어에서는 시사 영어라든가 편지 쓰기, 이력서 쓰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루도록 한다. 영어형태음운론은 영어의 어휘 구조와 음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데 묶어서 다루도록 한다(대학원에서는 영어형태론과 영어음운론이 구분된다). 영어통사론은 총론에 고급 영문법이라고 부르던 과목인데 주로 영어의 통사 구조를 다루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어학 특강은 영문학 특강과 마찬가지로 주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인데 영어학의 주요 주제들을 골라서 다루도록 한다. 영미문학특강은 영미문학의 작가나 작품 또는 주요 주제 중에서 골라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전에는 1학년과 2학년 전반기에 교양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어서 1학년에서는 전공 과목을 1 과목 정도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양 과목을 학부 4년 동안에 걸쳐서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1학년 1·2 학기에 전공 과목 2 과목씩을 배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학년과 3학년에 비교적 많은 전공 과목을 배정하여 선택의 폭을 넓게 하였으며 4학년 2 학기는 졸업 논문의 작성, 진학, 유학,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적은 과목을 배정하였다.

2) 教授 充員計劃

영어영문학과가 우리나라에 개설된 이래 1960

〈표 1〉 영어영문학과 전공 과목

학기	I 학기	2 학기
1	영문법 미문학개관	영어음성학 영문학개관 I
2	영어회화 영미산문 영어학개론 영문학개관 II 19세기 영소설 I	영작문 영어발달사 19세기 영시 20세기 미소설 현대미회곡
3	영어통사론 20세기 영소설 20세기 미시 17·18세기 영시 현대영회곡	영어형태음운론 19세기 미소설 19세기 미시 셰익스피어 I 영미문학비평
4	실용영어 영어의미론 20세기 영시 19세기 영소설 II 셰익스피어 II	16세기 영시 18세기 영소설 영어학특강 영미문학특강

년대초까지는 교수의 절대 수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도 한정된 상태에서 자연히 교과과정도 빈약한 데다가 어떤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학 전공은 거의 백지 상태였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구미 각국에서 어학이나 문학을 전공한 유능한 젊은 학자들로 교수진이 충원되면서 영어영문학은 그 전공 분야도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그 강의 내용 또한 심도를 더하게 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이론을 연마한 신진 학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부터는 교수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미리 짜여진 교과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전공 분야에 알맞은 교수를 충원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영어영문학 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 대학원 교육의 발전과 연결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국제 수준의 우수한 영어학 또는 영문학 박사가 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